

인천 서구의 유일한 섬 "세어도"



사진1-당제를 지냈던 소나무 군락지



사진2-관정수맥공사



사진3-굴피나무 군락



사진4-갈대숲



사진5-세어도 갯벌



사진6-정서진호

사진 제공 - 인천개항장연구소 안정현

문화로
사람이 아름다운
서구를 만듭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약도 /



/ 찾아오시는 길 /



버 스

도심형버스 1번, 202번, 3-2번, 42번, 46번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하차)
도심형버스 12번, 13번, 2-1번, 202번 (가정역 하차)
지선버스 584번, 591-1번 (가정역 하차)
광역버스 1000번, 9300번 (가정역 하차)



지하철

지하철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하차)

A.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T. 032-582-4341 F. 0502-582-4742

H. www.seogucul.or.kr

F. www.facebook.com/sgcult

한 / 눈 / 에 / 서 / 구 4

세어도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INCHEON SEOGU CULTURAL CENTER

세어도 식물

섬에는 굴피나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참나무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가 많이 있는데 흉년이 들면 도토리가 많이 열려 주식대용으로 충분할 정도로 그 양이 많았다고 한다. 또 수령 200년이 넘는 소나무 30여 그루와 단풍나무와 고로쇠나무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김첨지나무' 라고 부르며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세어도 자생식물로는 고사리, 산구절초, 질경이, 칩냉쿨 등이 있다. 소세어도와 연결되는 해안가 부근과 남쪽 해안가에는 갈대숲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세어도 생물 및 서식동물

세어도 동쪽의 앞바다는 썰물 때에 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았다. 특히 바지락이 '캔다' 라고 하지 않고 '굼는다' 라고 할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간척사업과 초지대교, 영종대교 등을 건립하면서 물길이 바뀌고 한강 홍수로 인해 모래흩이 쌓여 갯벌이 딱딱해지면서 바지락이 폐사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주변에 형성된 갯벌 습지에는 두루미와 같은 겨울 철새와 여름 철새인 저어새가 찾아와 서식했다. 육상동물로는 노루, 고라니, 뱀 등이 있으며, 천적 동물이 없다 보니 노루와 고라니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 밭농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세어도의 풍습

어업을 생업으로 하던 세어도에서는 당제를 지내던 풍습이 있었다. 마을과 가정의 안녕, 평안 그리고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당제를 지냈다. 당제에는 소를 사용했는데 소머리와 족, 꼬리 등 주요 부위들을 삶아서 올렸다고 한다.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돼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섬의 지형이 뱀의 형상이어서 뱀과 상극인 돼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제 전날 당집의 접시에 기름을 담아 심지에 불을 붙였는데, 다음 날 아침 그 심지가 쓰러지지 않고 곧게 서 있으면 섬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다.



세어도 편의시설

세어도가 전기문명의 혜택을 입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전기 공급은 원창동에서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2007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또, 대부분의 섬에서 공통적으로 불편한 점은 물부족이다. 특히나 세어도처럼 우물이 없는 경우 그 정도는 훨씬 심하다.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물부족이 심각하여 육지에서 물을 실어다 사용했다. 2004년 8월에 관정을 준공하여 식수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1회용 용기에 담아 공급해주고 있다.

